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민속의 새로운 의미와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홍연주

한국 민속의 새로운 의미와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

지도교수 오 수 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홍 연 주

홍연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해방 이후 한국은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수집, 생산된 기록을 통해 전통적 민속의 원형(原形)을 남기고 보존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산업화되는 사회 변화의 추세 속에서 민속학계는 전통적 민속뿐만 아니라 점차 현대적 도시 풍속에 유의하면서 새롭게 변화해가는 일상적인 생활 문화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민속의 의미가 변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되는 기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이 변화한 것이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민속 기록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아보았다.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는 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과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그리고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속아카이브가 이러한 민속 기록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였다.

1960년대 이후 대규모 민속조사사업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많은 민속보고서와 민속지가 발간되었다. 이 시기 민속은 개항기 이후 반속의 의례와 풍속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인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속은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고정적이고 고유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민속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과제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속 조사의 결과는 주로 연구자, 조사자의 지식에 의해 적절히 가감되고 편집된 형태의 조사보고서, 민속지 형식으로 생산되어왔다. 시청각 자료는 주로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서 결과물의 발간이 완료되면 각 부서나 자료실에서 보관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민속의 관심은 점차 도시 민속, 일상생활사와 같이 유

동적인 ‘현재’의 민속으로 옮겨온다. 전국이 도시화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이 동질화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또한 농촌 사회의 와해와 개항기 전후를 기억하는 세대의 노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민속의 관점은 그 의미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근대와 현대를 경험한 일반 시민의 경험과 기억이 민속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민속은 점차 잠재적 연구 가치를 지닌 기록화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당장의 시급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활용을 위한 충실한 기록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원자료의 모음’이 새로운 민속 기록의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자, 연구자에 의해 보고서로 간행되었던 민속 기록의 특성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사진, 질문지, 조사 노트와 같은 다양한 민속 기록이 보고서의 편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록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각의 기록은 하나의 현지 조사라는 큰 범위 안에서 상호간의 맥락을 유지하는 아카이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향후 민속학의 민속 기록 관리에서 기록 관리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이외에도 각각의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여 주제별, 매체별로 관리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속아카이브는 민속 기록이 가진 정보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민속아카이브는 현대 민속에 주목하는 민속학계가 민속 기록의 정보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 학문적 관점의 변화에 의해 민속 기록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속 기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주요어 : 민속 기록, 민속아카이브, 민속지, 도시 민속, 일상생활사, 기록관리

학 번 : 2011-20093

목 차

I. 머리말	1
II. 민속 기록의 수집과 생산	5
1. 민속 기록의 정의	5
2. 해방 이후의 민속 기록	10
3. 2000년 이후의 민속 기록	14
III. 민속의 의미 변화에 따른 민속 기록의 변모	18
1.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 변화	18
2. 민속 기록의 범주 확장과 서술 주체의 변화	24
가. 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	24
나. 시청각 자료의 역할	33
다.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	39
IV. 민속 기록의 변화와 민속아카이브의 역할 ..	44
V. 결론	48
참고문헌	50
Abstract	53

표 목 차

[표 1] 민속의 8개 연구 분야	6
[표 2]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 생산되는 민속 기록	10
[표 3] 수행 시기 별 주요 현지 조사와 민속 기록	15
[표 4] 주요 민속관계학회지 소재 논문의 민속 분석시각 ·	20
[표 5] 근대 민속과 현대 민속 비교	23
[표 6] 『한국인의 일생의례』 설문내용의 세부항목	27
[표 7] 『한국인의 일생의례(대전편)』의 편제	28
[표 8] 최근 민속박물관 민속 현지 조사의 시청각 기록 ...	36
[표 9] 민속박물관과 민속아카이브의 비교	46

I. 머리말

기록을 이해하는 일은 모든 형태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기록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왜 생산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기록의 본래적, 잠재적 쓰임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¹⁾ 그런데 기록을 생산하는 목적과 방식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록이 생산되는 목적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록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민속에 대한 연구가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풍속뿐 아니라 현대적 도시 풍속에도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민속 관련 기록이 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와 그에 따른 전례 없는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우리 것’을 찾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가 빠르게 근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움직임이기도 했고 국가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민속 분야의 현지 조사도 ‘우리 것’을 찾고 보존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민속이 민간전승에 의존하여 맥을 잇는 무형(無形)의 것이기 때문에 민속의 모습을 발굴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을 통해 민속의 원형(原形)을 글과 사진처럼 유형(有形)의 형태로 남기고 보존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산업화되는 사회 변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 것’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통 민속의 전승을 담당해온 농촌 사회가 축소되고 개인화된 도시 생활이 지니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민속이 갖는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민속학계는 전통

1) 제임스 오툴(James M. O'Toole), 이승역 역, 『기록의 이해』, 진리탐구, 2004, p.14~15.

적 민속뿐만 아니라 점차 현대적 도시 풍속에 유의하면서 특히 새롭게 변화해가는 일상적인 생활 문화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민속의 의미가 변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되는 기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대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를 조사할 때의 기록은 전통적인 민속의 원형을 조사할 때의 기록과 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이 변화한 것이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의 성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물음을 해결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본다. 먼저 2장에서 민속 기록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기록이 수집, 생산되었는지 알아본다. 3장 1절에서는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3장 2절에서는 새로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에 따라 민속 기록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본다.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는 세 가지 측면, 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과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그리고 민속 기록의 서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최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속아카이브가 이러한 민속 기록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는 3장에서 도출된 민속 기록의 변화상을 토대로 현상을 새롭게 해석해보려는 노력이다.

연구 대상은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이다.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은 광범위한 민속을 아우르며 민속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호 활동을 통해서도 회의록, 문화재관리대장, 기록영화 등 많은 기록이 나왔다.²⁾ 그러나 무형문화재에 관한 기록은 문화재보호법을 토대

2)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유산에 대한 기록화가 시작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기록 영화 150편, 기록 도서 75권 그리고 음반 기록물 21건이 발행되었다(문화재청문화재관리연감, 2005). 예능민속연구실은 기능종목의 경우 공예품 제작의 전체 과정을 수록하고 예능종목은 실연의 전체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록화 작업을 수행한다.

로 문화재의 기록화에 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재의 원형을 전승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생산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³⁾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그 중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종목에 있어서 한정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연구 시기는 전국적인 민속 분야의 현지 조사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이다. 1960년대는 해방 이후 일제의 학문적 금기와 한국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민속의 현지 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이다.⁴⁾ 1950년대에도 국문학계 연구자의 현지 조사에 의해 무가, 농요, 민요, 속담, 야담 등이 채집되었으나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한 초기의 현지 조사는 국가 기관, 대학의 연구 기관, 지역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된 1960년대 이후의 민속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문학계의 현지 조사는 주로 연구자가 개인 연구를 위해 국문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1960년대 이후의 민속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에 한정하였다.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 생산된 기록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의 주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록의 수집 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로 현지 조사를 통한 기록의 수집 과정

또 무형의 기·예능을 체득하고 있는 보유자의 생애와 전승계보, 전승현황도 지속적으로 기록화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관련 행정 기록으로는 2007년 이후 행정 기록 총 49건 중 1건, 2007년 이전 행정 기록 총 43418 건 중 779건으로 총 780건이 있다. 행정 기록은 지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지원과 관련한 기록이다. 2007년 이전의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행정 기록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3)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법적 용어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무형문화재를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전국민속경연대회를 거쳐 연극,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무예,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다.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실연할 수 있는 보유자가 기술을 보존하고 보유자가 지정한 전수자에게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이두현 외, 『한국민속학개설』, 일조각, 2004, p.33 참조.

에서 조사자가 취할 학문적 관점과 방법론을 논한다. 최근에는 건축이나 마을과 같이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로 기록이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⁵⁾ 다음은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 생산된 기록의 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기록의 분류, 메타데이터 요소의 도출을 비롯하여 그 양이 방대하고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기록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은 최근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 생산된 기록의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민속아카이브, 전자문화지도 등을 이용하여 기록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민속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 생산된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의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되, 기록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민속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속 기록이 어떤 배경과 관점에서 생산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역사적, 사회적, 학문적 영향 속에서 기록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방식을 이해할 때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도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조준배, 엄운진,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2009)/ 「이영남, 마을아르페 시론-마을 차원이-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2008)/ 진봉희, 우동선, 이우중,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2004)

Ⅱ. 민속 기록의 수집과 생산

1. 민속 기록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민속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을 ‘민속 기록’이라 부르기로 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민속 관련 자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민속자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민속자료는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중요 민속자료 236호)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복식, 전통가옥, 마을 등인 민속자료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민속 분야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을 지칭하기 위해 민속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민속 기록의 주제인 ‘민속’의 정의를 알아보자. 민속은 단순히 풀이하면 민(民)의 속(俗), 민중의 풍속이다. 그런데 민속의 개념은 1960년대 전국민속종합조사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의 개념과 근래의 것에 차이가 있다. 풍속 자체는 물론이고 민속을 연구하는 관점도 바뀌기 때문에 이를 담는 용어인 ‘민속’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1장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민속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민속의 변화된 의미는 3장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한다.

민속은 작게는 개인의 육체 관리를 위한 생활부터 크게는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와 공동 생활양식, 그리고 자연과 인간 · 신과 인간 · 역사와 인간 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과 인식체계 등을 총망라한 것이다.⁶⁾ 장철수는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에서 민속이 8개 연구 분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 <표1>의 내용을 민속 기록이 조사 · 수집의 대상으로 삼는 범위라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민속은 ‘특정 시기, 특정 집단의 생활

6)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p.156-159 참조.

양식과 인식체계'로서 일차적 기반인 사회, 경제, 의료, 의사소통 민속 그리고 이차적 표현인 의례, 연희, 신앙, 예술 민속을 다룬다.

<표1> 민속의 8개 연구 분야

<p>일차적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민속: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가족, 친족, 마을) -경제 민속: 생산과 소비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의 여러 측면 (의, 식, 주, 생업기술 및 도구) -의료 민속: 생물체로서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생활 (민간 의료) -의사소통 민속: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몸짓의 사용과 생활 (언어표현, 비언어표현) <p>이차적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례 민속: 특정 관념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간의 의식을 확인하는 행위(평생의례, 세시의례, 마을의례) -연희 민속: 집단 구성원 간에 여가 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행위(설화, 민요, 연희, 민속놀이) -신앙 민속: 신,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으로 형성된 행위(민간신앙, 풍수, 민속) -예술 민속: 미의식을 표현하는 행위(소리, 춤, 민화, 공예)

※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p.159

민속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민속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작업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 주지하듯이 민속은 유형(有形)의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생활양식이다. 민속은 대개 구전(口傳) 등 비문자적 수단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지 않다. 주자가례(朱子家禮)와 같이 관(冠) · 혼(婚) · 상(喪) · 제(祭) 사례(四禮)의 예

법에 관한 문헌이 있지만 이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예법 자체가 민속을 온전히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민속을 조사하여 유형(有形)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민속을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은 문화인류학의 현지 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민속이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된 표본 집단 내지 공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수행해왔다. 현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속 연구 및 보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다.

현지 조사(現地調査)라는 말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fieldwork’를 번역한 말이다. 전경수, 송석하를 비롯한 학자들은 조사라는 용어가 식민통치 상황에서 조선인과 조선 문화를 통치를 위한 관리대상으로 보고 조선민속을 조사한다는 맥락에서 이용되었다고 지적해왔다.⁷⁾ 이러한 이유로 현지 조사 대신 ‘당지연구(當地研究)’, ‘당지답사(當地踏査)’, ‘현지연구(現地研究)’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민속 조사’, ‘현지 조사’라는 단어가 한국 민속학계 혹은 인류학계에서 일반화되어 ‘민속학 연구 혹은 한국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⁸⁾

현지 조사를 통해 어떤 기록이 수집, 생산되는가를 살피기 위해 먼저 현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현지 조사는 조사주제나 마을의 상황, 제보자의 상황, 조사시점의 상황 등 많은 변수가 있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채택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⁹⁾ 그러나 크게 보면 현지 조사는 대개 면담 조사, 관찰조사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질문지 조사를 한다.¹⁰⁾ 면담조사는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질문하여 그 답변을 노트에 필기하거나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이다. 관찰조사는 조

7) 김시덕, 「한국민속학의 현지조사연구 방법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 41~42 참조

8) 현지 조사의 의미에 관한 내용은 김시덕, 위의 글(2005), p. 41~43 참조.

9) 김시덕, 위의 글(2005), p. 68

10) 현지 조사와 질문지 조사에 대한 방법은 배영동,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165 참조.

사자가 직접 사람들의 이런저런 행위를 눈으로 목격하여 노트에 간략하고 신속하게 적는 방법으로서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녹음과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다. 질문지 조사는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뒤에 응답을 서면으로 받아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지역편의 조사경위를 보면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표본 지역 중심의 현지조사라고 되어 있다.¹¹⁾ 이처럼 주로 면담 조사와 관찰 조사 그리고 질문지 조사를 통해 민속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속 관한 기록을 확보하게 된다.

민속의 하위 분야 중 세시풍속에 대한 조사의 예를 통해 보다 자세한 현지 조사 과정을 살펴보자. 세시풍속은 다달이 행해지는 복합적인 문화 현상인데다 오늘날에는 거의 단절되어 대체로 기억을 더듬어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조사대상에 대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현지의 주민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관련사물과 현상을 관찰한다. 제보자는 가능한 그 지역에서 평생을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시풍속 조사는 우선 조사지역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헌 조사를 포함한 세시풍속의 현지 조사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²⁾

- (1) 기초문헌조사: 조사지가 결정되면 문헌에서 그 지역관련 자료를 찾는다. 읍지(邑誌)류, 문집류, 세시가요, 가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섭렵할 수 있다.
- (2) 마을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마을의 성격과 현황을 파악하여 세시풍속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그러한 세시풍속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 (3) 세시풍속 전반 조사: 사실상 오늘날 ‘세시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

11) 허용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 243

12) 세시풍속 현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김명자, 「세시풍속과 의례」,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2010, p. 170~179 참조.

는 참여관찰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퇴색된 것에 대해 제보자의 기억과 체험을 토대로 재구성해야 한다. 때문에 제보자와 만나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듣는 면담형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자가 전체 내용을 기억하여 제보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 제보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 (4) 참여관찰을 통한 집중조사: 가능하다면 세시풍속 조사도 참여관찰방법을 취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당일에 참여하는 단순참여가 아니라 세시풍속을 행하기 위해 준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상황을 소상하게 조사한다.
- (5) 보충 조사: 조사한 내용을 기술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 (6) 자료 정리: 조사된 자료를 오래 두었다가 뒤늦게 정리하다보면 자세한 내용을 잊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조사 자료에 대한 기억과 혼재되기도 한다. 조사를 마치면 가능한 빨리 조사내용을 정리해야 조사자의 자의적인 정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 보충해야 할 부분을 파악한다.
- (7) 사진 및 영상자료의 확보: 제보자의 구술을 녹음하는 것과 함께 사진촬영은 필수적인데 사실상 세시풍속의 경우 민간신앙에 비해 사진자료가 대단히 드물다. 금기시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비의(秘儀)적인 신앙형태 등은 촬영 시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자료는 CD에 담고 촬영한 자료는 바로 디지털화하여 DVD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 사진이나 영상자료 역시 기억에서 멀어지기 전에 즉시 기록해둔다.

이와 같은 현지 조사가 수행되면 민속에 관한 여러 기록이 수집, 생산된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마을에 있는 장부, 편지, 도면, 박물관이나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 등이 수집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자들

이 생산하는 기록도 있다. 질문지 조사에서 수합된 질문지, 제보자의 말이나 관찰한 내용을 옮긴 조사 노트와 그림, 조사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 동영상 그리고 구술이나 노래 등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지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사자가 기록을 정리하는데, 이를 토대로 조사보고서, 민속지를 작성하기도 하고, 사진집, 자료집으로 묶기도 한다. 최근에는 조사가 끝난 뒤에 주제별, 지역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민속 기록은 민속의 현지 조사 과정에서 수집 및 생산된 메모, 장부, 박물, 도면, 사진, 동영상, 음성 기록부터 현지 조사 이후 정리된 자료집, 사진집, 민속지, 민속보고서, 민속아카이브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다.

<표2>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 생산되는 민속 기록

수집 및 생산 시기	기록의 생산 주체	기록의 종류
현지 조사 진행 중	제보자가 생산하거나 보관	장부, 편지, 도면, 박물, 사진
	조사자	수합된 질문지, 조사 노트 및 그림, 사진, 동영상, 녹음테이프
현지 조사 종료 후	조사자	조사보고서, 민속지, 사진집, 자료집, 주제 · 지역별 아카이브

2. 해방 이후의 민속 기록

시기별로 민속 현지 조사를 통해 어떤 기록이 수집, 생산되었는지 살펴본다. 해방 이후 그렇지 않아도 과거 식민지 문화정책의 영향을 받은 데에다가 한국전쟁, 근대화로 인해 빠르게 소멸하는 전통 민속의 보존을 위해 민속 기록이 수집,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나 한국의 근 · 현대 민속은 변동이 매우 컸고, 우리 20세기 사회의 특성을 규정짓는 말인 근

대화와 산업화, 자유와 민권은 전통 민속사회의 곳곳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¹³⁾ 근대화를 겪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전통 민속의 보존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과학화, 서구화 및 새마을 사업을 통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도로 파괴 및 소멸되어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전통을 발굴, 조사한 민속지 작업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한 것이다.¹⁴⁾

해방 후 일제의 모든 학문적 금기(taboo)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민족문화를 찾겠다는 국학의 일익으로 민속학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으나 한국 전쟁을 겪는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약 10년 동안 민속학의 본령인 현지 조사는 어려운 형편이었고, 해방 전 연구들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을 뿐이다.¹⁵⁾ 해방 후 민속학계는 국문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민속지를 정리하는 등 연구 방법으로 국문학적, 역사학적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1950년대에 활동한 민속학자들은 주로 민요와 민속극 분야를, 1960년대 민속학자들은 민간신앙과 구비문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특색이다.¹⁶⁾ 국문학계가 중심이 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주로 설화·무가·속담·민요의 채집을 기반으로 한 자료집과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문화 정책 차원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마련하였다.¹⁷⁾ 민속과 관련된 대표적 기관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산하에 1966년 신설된 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과 1969년 문화재연구실(현 국립문화재연구소)이다.¹⁸⁾ 문화재관리

13) 김일권, 「근현대 민속의 변동과 한국민속종합조사」,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308

14) 이기태, 「지역별 조사 성과의 의미」,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37

15) 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2004, p.33

16) 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위의 글(2004), p. 33~35

17)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관리국 설치(196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연례 개최(196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1962), 문화재위원회 설치(1964), 문화재관리국 산하한국민속관 개관(1966), 문화재관리국의 전국민속종합조사 실시(196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신설 및 민속계 설치(1969) 등 관보적 제도화가 전개되었다(김일권, 2012).

국의 『부락제당』(1968)과 문화재연구소의 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지역편(총12권, 1968~1980)은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한 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민속 기록이다. 이러한 전국민속종합조사는 관(官)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인원과 단체를 동원하여 수많은 민속 기록을 집적하였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¹⁹⁾ 전국민속종합조사는 지역편의 종료 이후에도 2011년까지 44년간 주제를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며 조사 규모와 보고서의 양(총 58권)에 있어 한국 민속 기록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1970년대 한국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가속화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삶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했다. 사회 곳곳에서 가난의 망령인 미신 타파 운동이 벌어지는 한편, 현대적 삶이 자리잡아가는 공간에서 사라지는 풍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민속 기록의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해방 이후 20년간 소멸하고 변질되는 우리 민속 문화의 국가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⁰⁾ 1970년대에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문화재관리국의 지역별 민속종합조사(1968~1980)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 민속종합조사에는 문화재 연구소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군의 직원과 해당 지역 대학 및 대학의 연구자, 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가 참여하였다.²¹⁾ 1970년대 말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구비문학대계 발간을 위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1980~90년대는 경제 개발에 따라 새로운 사회 주체로 성장한 서민의

18) 문화재관리국은 1961년 문교부의 외국으로 설치된 이후, 1968년 문화공보부의 외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1975년에 문화재 연구소와 민속박물관을 설치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은 2004년에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다(강정원, 2011).

19) 강정원, 「한국민속종합조사의 민속학사적 의미」,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347

20) 김일권, 「근현대 민속의 변동과 한국민속종합조사」,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318

21) 매년 한국문화인류학회는 해당 도에 있는 민속 관련 교수들과 교류하며, 표본 조사 마을의 선정 등으로 그 선도(先導)를 부탁하는 협력관계를 반복해 나갔다(장주근, 2011). 약 10년간의 민속종합조사 기간 동안 민속학계를 포함한 전통문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을 대부분 활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기태, 2011).

전통생활문화에 관심을 집중하던 시기이며, 민속 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와 전문 학자들에 의해 민속 조사의 주체가 매우 다변화된 시기이다.²²⁾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 단위의 민속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 민속 기록도 생산되었다. 이러한 민속 기록으로는 영남대학교와 경상북도가 공동 작업한 지역민속지인 『경북예악지』(1989), 제주도의 문화 운동가들이 협력한 제주의 마을 시리즈, 경기도 박물관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민속종합조사를 통해 발간한 『경기 민속지』, 한국민속박물관의 위도의 민속(蝸島의 民俗) 시리즈 등이 있다. 위도는 내륙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의 불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잘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어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조사 표본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이다.²³⁾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향촌 민속지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 향촌 민속지 시리즈는 한국민속종합조사 지역편이 1개의 도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1개 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하여 주제에 따라 마을이 달라져, 문화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추진되었다.²⁴⁾ 조사방법은 각 도별로 2개 마을을 정하고, 그 2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각 문화요소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향토사 전국협의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유명마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마을 시리즈(전 22권)를 발간하였다. 이처럼 1980~90년대에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와 전문 학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민속 기록이 생산되었다.

22) 김일권, 위의 글(2011), p.324

23) 국립민속박물관, 『위도의 민속: 대리원당제편(蝸島의 民俗 : 大里願堂祭篇)』, 1984, p.5

24) 김시덕, 「한국민속학의 현지조사연구 방법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51

3. 2000년 이후의 민속 기록

2000년을 전후하여 민속의 화두는 전통적인 풍속에서 현대적 도시의 생활사로 옮겨온다. 탈냉전·탈이념의 시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국적 동질화, 개인주의의 확대라는 특성을 띠는 2000년대에는 개인화된 일상문화와 시민사회의 도시적 생활 민속이 주목 받고 있다.²⁵⁾ 민속학자와 향토사학자들은 민속학이 과거의 민속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속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민속을 과거의 사라진 대상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 도시 풍속과 일반적인 시민의 일상생활을 조사한 민속 기록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민속박물관은 최근 지역민속조사를 통하여 지역별로 일반 가정의 일상을 기록화하고 있다. 가정의 살림살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지역민속지마다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보고서를 함께 발간하는 것이다.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는 2007년부터 아현 뉴타운·창신동·동대문시장·명동 등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민속조사를 통해 서울의 도시 풍속을 기록한다. 전남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중생활사연구단은 “근·현대를 경험한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한국민중구술열전』, 『한국 민중의 구술자서전』을 비롯한 구술 자료집과 사진집 등을 발간했다.²⁶⁾

이상에서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기별로 어떤 민속 기록이 수집, 생산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1960년대 이후의 민속 기록에 초점을 두었다. <표3>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민속 조사와 이를 통해 생산된 민속 기록을 민속 조사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목록은 민속 기록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속 기록을 토대로 하였다.²⁷⁾ 3장에서는 <표3>의 민속 기록을 중

25) 김일권, 위의 글(2011), p.318

26) 김주관, 「문화자료와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2호, 2006, p.447~483

27)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심으로 민속의 새로운 의미에 따라 민속 기록의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3> 수행 시기 별 주요 현지 조사와 민속 기록

조사 기간	수행 기관	현지 조사	결과물	특징
1967	문화재 관리국	전국부락 제당조사	한국의 마을제당 (7권의 보고서)	전국민속종합조사 이 전에 전국 단위로 행 한 첫 민속조사로 보 고서는 한국민속박물 관이 1995~2004년 발 간
1968~ 1980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민속 종합조사 (지역별)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지역편 (총 12권)	최초의 지역별 종합 조사
1979~ 1992	한국학 중앙연구원	구비문학대계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 82권, 부록 2권, 부록 1권)	
1981~ 2002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민속 종합조사 (주제별)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주제편 (총 18권)	소수의 전공자가 각 기 단일주제를 일관 된 시각과 체계로 조 사
1982~ 1986	한국 민속박물관	위도의 민속 조사	위도의 민속 (3편의 민속지)	
1985~	제주의 문화운동가		제주의 마을시리즈 ²⁸⁾	2005년까지 17권 발행
1988~ 1998	한국 민속박물관	장승·솟대 신앙조사	보고서(총 7권)	마을신앙 중 장승·솟 대 신앙에 대한 학술 조사
1989	영남대학교 · 경상북도	경북예악지	경북예악지 (慶北禮樂誌)	예(禮)와 악(樂)을 주 제로 한 민속지로서 지역민속지이면서 의 례와 악무라는 주제 별 민속지 ²⁹⁾

2000/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민속학회, 2011/ 김시덕, 「한국민속학의 현지조사연구 방법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39~70/ 허용호 외,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1992~	한국학 중앙연구원	향촌민속지	한국의 향촌민속지 -경상북도,전라남 도,인천광역시 (총3편)	이 조사는 한국 최초 로 한 마을을 집중적 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997	한국 민속박물관	재외한인동포 의 생활문화조사	중국, 중앙아시아, 연해주, 일본, 미국 외	한 마을의 다양한 문 화현상 조사
1998~ 2005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민속종합조사 30)	경기민속지 ³¹⁾ (총 8권)	경기도의 민속을 조 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1998	한국향토사 연구 전국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조사	한국의 전통마을 시리즈(2005년까 지 22권 발행)	문화관광부의 지원 받음
2000~ 2006	국립문화재 연구소	세시풍속조사	세시풍속-지역별 (총 10권)	한국민속종합조사 시 작 후 사회문화적 변 동에 따른 민속의 변 화로 인해 전면적 재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기획된 조사
2000~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경북의 전통마을	경북의 전통마을 시리즈 ³²⁾	2000년부터 매년 경 상북도 내 시군별로 전통성이 있는 대표 적인 마을을 1개씩 선정하여 조사
2003~ 2011	한국 민속박물관	주제별 민속조사 지역사례연구	-네팔의 혼례문화 -중국의 혼례문화 -뚜바·부랴트·알 타이 지역의 북 방 샤머니즘 -네팔 히말라야 샤머니즘	국립민속박물관이 2003년부터 아시아 지 역을 중심으로 인류문 화의 보편성과 동질성 을 찾기 위해 수행한 지역 사례 연구
2003~ 2023 계획 33)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³⁴⁾		한국학지식정보센터 에서 맡고 있음
2002~ 2007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단		한국민중구술열전 외 ³⁵⁾ (총 15권)	20세기민중생활사는 근·현대를 경험한 민 중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06~ 2011	한국 민속박물관	도시민속 조사사업	지역민속지, 살림살이 보고서	하나의 민속지당 하 나의 살림살이 보고 서가 연동 예: 『인천 차이나타 운 淸館』과 『왕조 용·김미라 가족의 살 림살이』

2007~ 2011	국립문화재 연구소	일생의례조사	한국인의 일생의례 (총 11권)	일생의례라는 단일 주제를 다룬 민속지
2007~	서울 역사박물관	도시민속조사	도시민속 조사보고서	아현 뉴타운, 창신동, 동대문시장, 명동 외 2011년까지 11개 지역
2009~ 2010	한국 민속박물관	주제별 민속조사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	

- 28) 제주의 마을 시리즈는 제주도의 문화운동가들이 주도한 마을지로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총17권의 마을지(마을의 민속지)를 발간하였다. (김시덕, 「한국민속학의 현지조사연구 방법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54~55).
- 29) 내용을 보면 총설편에서 예속과 악무의 이론적인 부분을 개관하고 경북지역의 특성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예속편에서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가례(家禮)와 향례(鄉禮), 동제(洞祭)를 다루었고, 악무편에서는 민요, 농악, 여성군무, 가면무극(假面舞劇), 무계악무(巫系樂舞)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김시덕, 위의 글(2005), p.54)
- 30) 경기도의 민속종합조사보고서로써 1995년에 실시한 경기도민속종합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표본마을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997년 3월 조사 집필자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점차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민속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김시덕, 위의 글(2005), p.53).
- 31) 『경기민속지1-개관편』(1998), 『경기민속지2-신앙편』(1999), 『경기민속지3(세시풍속,놀이,예술편)』(2000), 『경기민속지4-의식주편』(2001), 『경기민속지5-일생의례』(2002), 『경기민속지6-생업기술,공예편』(2003), 『경기민속지7-구비전승편』(2004), 『경기민속지8-개인생활사편』(2005)
- 32) 『까치구멍집 많고 도둑 없는 목현마을』(2002). 『반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현리마을』(2003), 『줄당기기와 길쌈이 유명한 청운마을』(2004) 등.
- 33) 시범사업: 2003년~2004년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사업)
-본 사업(1단계): 2004년~2013년 (60개 지역)
-본 사업(2단계): 2014년~2023년 (편찬인증제 시행, 150개 지역)
- 3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디지털화된 민속지 같은 느낌을 준다. 사진이 올라와 있고, 구술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 35)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전6권)(2005), 『어제와 오늘:한국 민중80인의 사진첩』(2005), 『어제와 오늘2:한국 민중80인의 사진첩』(2007), 『어제와 오늘3』(2008), 『한국민중구술열전』(전15권)(2007) 외.

Ⅲ. 민속의 의미 변화에 따른 민속 기록의 변모

1.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 변화

본 연구의 목적은 민속 기록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이 변화한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민속의 시기적 구분인 근대 민속과 현대 민속을 토대로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련 연구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 1장에서 ‘민속’은 같은 시간과 공간 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문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민속의 학문적 정의는 시대와 무관하게 통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민속의 의미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한다. 민속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시기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느 때부터 민속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분절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다른 경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김일권은 근현대 민속의 변동을 고찰하면서 한국의 민속을 근대 민속과 현대 민속으로 나누었다.³⁶⁾ 근대 민속 시기는 개항 이후 1980년대까지를 말하고 현대 민속 시기는 1990년대 이후를 말한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도시화,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민속의 의미가 변화한 것에 비해 개항기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부분적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 사회의 경향성이 연장되는 동질적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도시화, 근대화로 인해 근대 민속의 의미는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를 앞선 시기와 구분하여 현대 민속이라고 부른다.

먼저 근대 민속 시기의 ‘민속’을 살펴보자. 1970년대 민속 현지 조사에서 농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한다고 했을 때 그 구술자가

36) 김일권은 근대 민속은 전근대 민속 시기와의 비교되는 구분으로서 이 때 전근대 민속은 양반관료사회가 지속되어 반상의 구별이 뚜렷한 개항기 이전의 구조 속에서 서인의 민속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억하는 한도는 1900년을 전후한 시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 민속은 1900년을 전후한 농촌 사회 민중의 풍속이라고 보면 적절할 것인가? 사실 “전통 민속으로 혼합된 주자가례 규범의 관혼상제례라든지 동제(洞祭) 및 기우제(祈雨祭) 등의 유교적 관속류(官俗類) 등은 본래 반인(班人)의 영역”이었다. 이러한 요소는 개항기 이후에 민속의 기층으로 확산된 것이다. 양반의 의례가 그 동안 전통 민속의 이름으로 혼합되어 농민, 기층민의 민속이라 견강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근대 민속은 ‘개항기 이래 사회적 변동에 의해 반상(班常)의 민속이 혼합되면서 나타난 민속현상과 구조’로 볼 수 있다.³⁷⁾

1990년대 이후 근대 민속의 의미는 변화를 맞게 된다. 변화된 민속의 새로운 개념을 두고 앞의 근대 민속과 구분하여 현대 민속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변동은 사회적인 영향에서 비롯하였다. 전국이 세계화, 도시화, 산업화, 네트워크화 되면서 지역 간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농촌 사회는 와해되었다.³⁸⁾ 마을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는 바람에 더 이상 전통문화의 전승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³⁹⁾ 도시 계획에 의한 주거와 주변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가 점차 늘어나면서 삶의 풍속도 상당 부분 바뀌었다. 개항기 이후의 풍속을 기억하는 1900년대 전후에 태어난 제보자도 고령화되어 그 이후의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민속, 개항기 이후 반속의 민속이 혼합된 전통적인 민속의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를 보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학계에서는 향후 민속 관련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게 된다. 이에

37) 김일권, 위의 글(2011), p.322~324

38) 임재해, 「총론: 마을민속 조사방법」,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2010, p.24

39) 임재해는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에서 안동 하회마을은 지금 문화관광지로 북적대는데도 인구 감소의 추세와 노화 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30년 만에(2010년 기준) 인구가 6분의 1로 감소했고 50대 이상의 인구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 하회마을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 관광지로서 여건히 상당히 좋은 마을이다. 그런데도 10년 단위로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고 최근에는 감소율이 더 높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생명력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민속 뿐 아니라 현대적 도시 풍속과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김일권은 소멸되어가는 전통적 민속의 조사에 못지않게 21세기 시민 사회의 일상생활사를 위한 새로운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여 양자에 균형을 추구해야한다고 보았다. 배영동은 ‘잔존 문화’와 ‘진행형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민속학적 연구 대상 구분했다.⁴⁰⁾ 그는 지금까지 민속학계가 잔존문화를 조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다. 소수 마을에 남아있는 잔존 문화에만 집착하면 잔존 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민속학적 연구대상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행형문화도 함께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다.

장장식은 2000년 이후 민속학의 관심이 현재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21세기 한국 민속학이 오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대강의 합의가 현재의 민속학적 시각”이라고 하였다.⁴¹⁾ 이러한 시각의 변동은 단절적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근대 민속 시기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현재’의 민속에 관심을 갖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속의 의미는 ‘개항기 이래 사회적 변동에 의해 반상(班常)의 민속이 혼합되면서 나타난 민속현상과 구조’로서 근대 민속뿐 아니라 ‘현대적 도시 풍속과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로서 현대 민속까지 담게 되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속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표4> 주요 민속관계학회지 소재 논문의 민속 분석시각⁴²⁾

시기	과거 읽기의 시각	현재 읽기의 시각	전체
1990년대	36편(92.3%)	3편(7.7%)	39편(100%)
2000년대	60편(75.9%)	19편(24.1%)	79편(100%)

※ 장장식, 위의 글(2005), p.33

40) 배영동,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163~164

41) 장장식, 「한국민속학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성찰」,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32~33

42) 1990년대(1992~1993)와 2000년대(2002~2003)의 일정 시기에 발행된 주요 학회의 학회지(『한국민속학』, 『비교민속학』, 『역사민속학』)에 수록된 논문들의 시각을 검토한 통계이다.

민속 개념의 확장은 민속 연구의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민속 연구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근대 민속에서 민속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시대와 더불어 민속지형이 지속적으로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속은 ‘소멸’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⁴³⁾ 김일권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조사 관점이 70년대뿐 아니라 80년대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가 되어도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로서의 민속”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시점이 다변화되거나 현재민속에 두어져 있지 않고, 과거민속, 그것도 이 민속종합조사사업이 출발하던 1960년대로 맞추어져 있는 것은 좀 ‘기묘한 조사’라고 하였다. 더구나 2000년대의 최근 현지 조사도 가장 변화된 민속지형을 읽고 조사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잔존하여 있는 전통 민속의 흔적을 애써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 서술하였던 까닭에 민속의 변화 측면보다 민속의 항존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⁴⁴⁾ 즉, 근대 민속의 조사 대상은 현재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찾아내어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근대 민속은 또한 고정적인 원형으로 존재하며 이 원형을 기준으로 삼아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는 대상이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지역편)를 보면 항목별로 어떤 민속이 어떤 형태로 잔존해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변화의 정도를 기술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서술 방식 중의 하나는 ‘본래 ~게 하나 지금은 그것이 남아 있지 않고, ~한 형태로 남아있다’ 와 같은 문장이다. 민속의 원형을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지역편이 취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속 현지 조사는 항목별로 민속의 잔존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관점은 주제별 민속종합조사보고서와 『경기민속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경기민속지Ⅱ-신양편』 중 경기남부 무속신양

43) 김일권, 위의 글(2011), p.321

44) 김일권, 위의 글(2011), p.323

부분의 머리말이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1978)』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이 지역 무속의 상황이 조사당시(1977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조사되었던 무당들 중에는 현재 생존하는 이도 있으며, 당시에 이미 지적되었던 화쟁이패 무당의 잔존과 단골판의 존재 확인, 이른바 서울식 강신무 굿의 성행 등의 모습을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민속조사의 무속신앙 조사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과 연속성을 지니면서 역사적 변화의 추이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⁵⁾ 조사 내용에서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의 조사 시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유지되었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서술하였다. ‘민속’이 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할 원형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민속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야 할 고정적이고 고유한 것으로서 보호와 복원의 대상이다. 근대 민속의 영역은 현재를 사는 일반 대중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근대 시기의 민속은 일부 제보자와 전통 민속이 보존된 집단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발굴된다. 근대 민속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시급히 그 원형과 실체를 밝혀야 하는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한편 현대 민속은 시민사회의 일상생활과 도시의 풍속에 주목한다. 현재 대규모 재건축 이전의 공간을 기록하는 건축 아카이브, 명동이나 동대문시장 등 도시 풍경을 담은 도시민속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살림살이조사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현대 민속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현대 민속의 영역에서 민속 연구의 관점은 근대 민속 시기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근대 민속은 소멸해가는 것으로서 시급히 보존해야 하는 것인데 비해 현대 민속은 일반 시민이 경험하는 유동적인 현대의 일상과 풍속이다. 이때의 민속은 고정적 원형을 가지고 복원되는 대상이기보다

45)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Ⅱ-신앙편』, 1999, p.374~375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생활양식과 인식 체계’이다.

현대 민속의 기록을 수집 및 생산할 때에는 근대 민속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요구되지만 비전문가, 일반 시민의 역할도 증대한다. 현대 민속은 과거의 관습과 의례를 잘 기억하는 제보자가 전하는 민속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이 전하는 민속이다. 때문에 현대 민속은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보다 잠재적 활용을 위한 기록화의 대상으로서 더 의미를 갖는다. 현대 민속은 당장의 연구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기록화를 통해 미래의 학문, 문학, 예술 등에 이용될 잠재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5>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근대 민속과 현대 민속의 의미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2절에서는 이 같은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 변화가 민속 기록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5> 근대 민속과 현대 민속 비교

구분	근대 민속	현대 민속
시기	개항기~1980년대	1990년대~최근
민속의 개념	개항기 이래 사회적 변동에 의해 반상의 민속이 혼합되어서 나타난 민속현상과 구조	일상생활사, 도시 민속
민속 연구의 관점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그 원형을 보호, 복원해야 하는 대상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	-일반 시민이 경험한 근·현대의 일상사와 풍속으로서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상 -향후 잠재적 이용을 위해 근현대 민속을 풍부하게 기록화 하는 것이 필요

2. 민속 기록의 범주 확장과 서술 주체의 변화

2절에서는 사회 변동에 의해 민속의 개념과 민속 연구의 관점이 변화한 것이 민속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본다.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는 세 가지 측면, 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과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그리고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에서 살펴본다. 현대 민속 시기에는 도시민속보고서, 살림살이 조사보고서와 같이 현대 시민 사회의 일상생활사와 도시 민속을 조사한 민속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근대 민속을 대상으로 한 기록과 현대 민속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양자 중 어느 한쪽에 더 중점을 둔 민속 기록이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민속과 현대 민속으로 기록의 주체를 양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간의 전후 관계상 근대 민속 시기에서 현대 민속 시기로 오면서 기록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록의 성격은 민속 기록 자체 그리고 관련 연구의 검토를 통해 살펴본다.

가. 민속 기록의 정리 방식

근대 민속 시기 민속 기록은 민속 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록들을 조사 보고서, 민속지로 엮어낸 형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외적으로 국문학계에서 관심 있게 다루는 분야인 설화, 무가, 속담, 민요의 경우는 채집한 노래나 이야기를 묶은 자료집 형식으로 다수 발간이 되었다.⁴⁶⁾ 이러한 자료집 형태를 제외하면 근대 민속 시기 대부분의 민속 기록은 조사

46)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구비문학대계』(전85권, 1979~1992), 김태곤의 『한국무가집』(총4집, 1971~1979), 임동권의 『한국민요집』(전7권, 1961~1992), 이소라의 『한국의 농요』(전4권, 1985~1990),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전12권, 1987~1993) 등이 있다.

보고서, 민속지로 정리되었다.⁴⁷⁾ 1967년 전국부락제당조사에 의한 7권의 보고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민속종합조사보고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촌 민속지 시리즈, 경상북도의 경북예약지 등은 모두 일정 항목과 체제에 따른 민속보고서, 민속지이다.

민속 기록을 기획된 주제에 의한 수집 기록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록을 어떤 틀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점이 여타의 수집 기록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예를 들어 미술 아카이브는 작가의 습작, 스케치, 작품 매매(賣買)계약서, 편지, 노트, 평론, 기사 등을 모아놓은 형태일 것이다. 혹은 해설집, 자료집 등의 형태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민속 기록은 이러한 수집 자료를 조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보고서, 민속지로 편집한 형태가 가장 많다. 물론 민속 기록이 ‘무형’의 대상을 다루며 피조사자의 기억과 연행을 관찰하는 현지 조사의 결과물인 까닭에 다른 수집 기록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1970~80년대 전통 문화 보호 정책에 의해 추진된 민속조사보고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결과 보고(報告)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민속 기록이 다른 수집 기록이 갖는 성격과 비교했을 때 문헌, 구술 기록, 사진, 영상 등 수집된 기록 자체가 아닌 보고서의 양식으로 생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근대 민속 시기 민속 기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속지, 민속보고서, 조사보고서는 어떤 특성을 지닌 기록인가? 민속지가 민속보고서나

47) 국문학계에서 관심을 갖는 민속 분야인 설화·무가·속담·민요 등이 채집한 노래나 이야기를 묶은 자료집 형식으로 정리되는 경향은 민속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경기민속지Ⅶ-구비문학편』의 설화, 무가, 민요, 생활언어, 속담, 수수께끼, 속신어(구비단문), 방언은 항목별로 제보자에 대한 설명과 구술을 채록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48) 민속 기록을 수집 기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속 기록은 기증이나 매매, 일반적인 수집 활동보다는 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생산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 민속 기록은 연구소의 연구 결과물 혹은 국가 기관의 사업 수행 이후의 결과물로서 기관의 업무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이관 받은 아카이브(archives)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시각의 가능성 때문에 민속 기록을 어느 한 편으로 정하여 보기보다는 수집 기록으로 보았을 때를 가정하여 논의하였다.

조사보고서보다 더 분석적이고 조사자의 주관에 담은 서술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과 쓰임에 대해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지, 민속보고서, 조사보고서를 통틀어 민속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민속지는 서양 문화인류학의 한 부문인 민족지학(民族誌學, ethnography)에서 파생된 것이다.⁴⁹⁾ 민족지학은 현존한 민족의 관습이나 습속에 대한 순수한 기술(記述)이다. 이는 민족, 특히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문헌으로 역사가 전하지 않는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⁵⁰⁾ 즉 민족지, 민족지학은 기본적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사회·문화적 차이(gap)가 큰 조건에서, 많은 경우 문자가 없거나 혹은 역사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사회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민속지(民俗誌)는 한국의 민속 연구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로 인류학적 현지 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민속 기록을 수집·정리하는 작업이다. 민속지의 목적은 연구하는 문화를 전혀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깊이와 폭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고하는 데 있다.⁵¹⁾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첫 간행물인 ‘전남편’의 조사경위에는 민속 조사가 ‘민족 문화의 발굴선양, 소멸해가는 민속 문화의 조사기록 보존, 문화재 지정사업상의 참고 내지 기준, 학술연구 및 문화재관리행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민속 조사의 목적이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이자 전통문화의 참고 자료를 생산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민속지는 개별 학자의 관점에 따라 서술의 관점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연구 대상에 대한 총체적 보고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민속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기록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방법에 있어서 현지 참여관찰을 통해 민

49) 김시덕은 「한국민속학의 현지조사연구 방법론」에서 ‘Ethnography’가 민족지, 민속지, 민족지학, 문화기술지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고 했다. 배영동은 「현지조사와 민속지 작성의 방법」에서 민속학의 목적과 연구 경향 및 방법을 고려하여 민속학에서는 ‘Ethnography’를 민속지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50) 이두현 외, 위의 글(2004), p.16~21 참조

51)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장철수, 민속원, 2000, p.14

속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 보고서라는 특성을 가진다. 민속지는 연구 대상에 대해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서술을 위해 현지에서 참여관찰을 통해 직접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민속학자는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현지 조사를 마친 뒤에 수집된 민속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보고 작업을 수행한다.⁵²⁾ 민속지는 이러한 자료 수집의 과정을 통하여 한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의 행위와 신념, 이해, 태도와 그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가치가 집약되어 쓰인 보고서이다.⁵³⁾

민속지의 편제는 현지 조사 사업의 시작점에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되어 있다. 김시덕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중 일생의례편인 『한국인의 일생의례』의 체계를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의 전 분야에 걸친 일정한 편제의 근간은 조사연구사업을 착수하는 해인 2007년 5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생의례 조사 설문 매뉴얼』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표6> 『한국인의 일생의례』 설문내용의 세부항목

<p>I 출산의례(出產儀禮)</p> <p>가. 기자(祈子)/ 나. 산전(産前)/ 다. 해산(解産)/ 라. 산후(産後)/ 마. 육아(育兒)/바. 기타/ 사. 출산의례의 변화/ 아. 출산의례의 특징/ ※ 관련자료</p> <p>II 성년의례(成年儀禮)</p> <p>가. 관례/계례/ 나. 기타 성년의례/ 다. 여성의 성년의례/ 라. 성년의례의 변화/ 마. 성년의례의 특징</p> <p>III 혼례(婚禮)</p> <p>가. 의혼(議婚)/ 나.납채/연길/송복/납폐/ 다. 혼례식(婚禮式)/ 라. 재행</p>
--

52) 임재해, 「민속 조사보고,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민속정보 축적과 문화 지식 공유의 발상 전환」,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16

53) 장철수, 위의 글(2000), p.13~14 참조

(再行)/신행(新行)/현구고례(見舅姑禮)/근친(覲親)/ 마. 기타/ 바. 혼례의 변화/ 사. 혼례의 특징/ ※ 관련자료

이하 중략

※ 김시덕, 「일생의례 조사의 성과와 의의」,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35~136

<표7> 『한국인의 일생의례(대전편)』의 편제

<출산의례>

가. 기자(치성, 삼신받기)/ 나. 산전(경도, 태몽 및 태아의 성 구별, 출산일 예지법, 태중금기, 유산)/ 다. 해산(산시·방향의 길흉, 산실, 산모와 산파, 난산, 태의 처리, 금줄, 기타)/ 라. 산후(삼신상, 몸조리, 수유)/ 마. 육아(배냇저고리, 작명, 목욕·손발톱·두발처리, 백일·돌, 외가 첫나들이, 건강과 장수의 기원/ 바. 기타(출산 후 당는 제사)

<혼례>

가. 의혼(혼인적령기, 중매, 선보기)/ 나. 납채·연길·납폐(사주, 택일, 함)/ 다. 혼례식(상객·위인대표, 사처, 신부의 성장, 신부 집에 들어가기, 초례칭, 혼례식(전안례 포함), 첫날밤, 자릿조반)/ 라. 신행 현구고례 재행 근친(신행, 신랑 집에 들어가기, 폐백, 재행, 근친)/ 마. 기타(시집살이, 비밀상적인 혼례
<민며느리혼, 쌍둥이 혼인, 사후혼, 재혼>)

이하 중략

※ 김시덕, 위의 글(2011), p.134

김시덕은 <표6>에서 볼 수 있는 일생의례 조사를 위한 설문의 세부 항목이 <표7> 한국인의 인생의례 보고서의 편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사업을 발주하면서 민속지 기술체계를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혼례에 관한 부분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속지의 항목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의 조사 세부 항목과 민속지의 편제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⁵⁴⁾ 현지 조사가 계획되면 이처럼 조사 항목과 그에 따른 보고서의 편제의 큰 틀이 결정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조사자는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가. 기자(祈子)/ 나. 산전(産前)”와 같은 항목에 대한 사실적 기술 뿐 아니라 “바. 혼례의 변화/ 사. 혼례의 특징”과 같이 조사자의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하게 된다.

현지 조사 이후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편제로 엮게 되면 조사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 다양한 경험, 수집된 각종 자료들이 보고서, 논문, 단행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⁵⁵⁾ 원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는 이 중 조사·연구의 주제와 취지에 맞는 내용을 취하여 조사보고서, 민속지의 목차와 편제에 맞게 가감한다. 함한희는 마을조사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수집한 자료가 완성도와 체계성이 떨어져서 결과보고서에 수록될 수 없는 자료들도 있고, 출판의 기획의도에 맞지 않아서 넣을 수 없는 자료들도 많다고 하였다. 김홍식은 1978년 당시 전국민속종합조사(의식주편)를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⁵⁶⁾

필자가 수십 동(棟)을 조사했어도 실제의 기술은 조사대상의 그 20~30퍼센트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 …(중략)…자료를 분류해서 정리한 것은 다만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욕심이었을 뿐, 그것을 자료로 삼기에는 이미 한 단계 걸러진 결과를 빚고 말았다.

현지 조사를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래 조사한 내용의 일부만 담게 되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보고서의 틀 내에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관점이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원자료로서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54) 『한국인의 일생의례』의 편제에 대한 내용은 김시덕, 「일생의례 조사의 성과와 의의」,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32~136 참조

55) 함한희, 「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p.8

56) 김홍식, 「전국민속종합조사의 회고와 전망-의식주 분야-」, 『한국문화인류학』 제10호, 1978, p.144

반대로 조사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어서 기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면담조사나 관찰조사 자료 가운데서 노트에 적힌 내용은 상당히 압축적이고 다소 부정확할 정도로 미완성인 상태이다.⁵⁷⁾ 이러한 조사노트를 정리할 때는 압축되고 불완전한 표현들을 최대한 부풀리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풀어서 써야 한다.⁵⁸⁾ 한국민속종합조사 지역편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조사단원들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화재과에서 이것을 수합해서 편집하고 보고서를 간행하였다.⁵⁹⁾ 이처럼 민속지, 조사보고서 형식의 민속 기록은 조사의 목적과 조사자의 관점에 의한 자료의 편집·정리가 원자료의 형식에 비해 더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근대 민속은 민간신앙, 세시풍속, 관혼상제 등 그 자료의 이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현지 조사 후 일차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자료를 조사자의 관점, 조사 전체의 일정 체계 하에 정리한 민속지, 조사보고서의 형식이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이 과정에서 수집한 원자료를 보고서의 편제에 맞추어 정리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엮는 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이러한 민속 기록의 형식에 변화가 있다.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기록을 ‘원자료(raw data)의 모습’형식으로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나

57) 배영동,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167~168

58) 배영동은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에서 제보자는 현장에서 시간의 구속을 받게 되고, 게다가 다방면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기 일쑤라서 조사 노트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노트에는 문화현상에 대한 핵심적 편린들이 적혀 있는 정도라고 보았다.

59) 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의 기획과 그 경위」,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8

60) 허용호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조사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 민속종합보고의 의미는 원자료의 수집에 있지 않고 당시 조사자의 다양한 시각의 반영에 있다고 하는 요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필자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가 ‘순수민속자료인가’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오히려 필자는 ‘현재적 변화를 바라보려한 동태적 접근의 사례들’, ‘당대의 상황을 기록한 대목’ 등에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 성과를 찾는다. ‘현재의 민속을 바라보는 혹은 민속을 조사하는 다양한 시각이 어지럽게 공존한 서울 지역 조사 보고서 역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료라고 해서 원자료 또는 원천자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⁶¹⁾ ‘원자료’는 민속 기록이 수집될 때 그대로, 조사자의 관점에 의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구술을 채록했을 때 구술의 일부를 간접화법의 형태로 인용한 보고서와 구술을 녹음한 음성 기록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된다. ‘원자료의 모음’이라고 한다면 조사 당시 수집된 음성 기록, 사진, 메모, 질문지, 영상 등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형태이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원자료 형식의 민속 기록 수집을 시도한 대표적 예이다. 2002년 출범하여 2007년까지 진행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근·현대를 경험한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였다. 기록의 방법은 민속 기록의 수집 단계부터 ‘원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조사기법상으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방법은 현지조사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 단계부터 아카이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⁶²⁾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 사진집, 구술집 등을 출간하였다.⁶³⁾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아카이브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이 아카이브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구술 음성 파일 1,114개, 사진 파일 10,741개, 동영상 파일 514개, 문서 파일 815개가 등록되어 있다.⁶⁴⁾ 수집한 자료는 각 자료에 분류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체별로 분류하여 상자에 담아 보관한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는 사진과 문서, 물적 증거, 구술생애사, 기록영화 및 극영화,

61) 함한희, 「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p.15

62)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에 관한 내용은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1호, 2005, p.221~223 참조

63)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록학회 제33권, 2012, p.86

64) 김주관, 위의 글(2012), p.93

사료적 가치를 갖는 문학작품 등인데 이들 자료를 매체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⁶⁵⁾

- 정지 영상: 제보자 제공 사진, 조사자 제작 사진, 지도 등
- 동영상: TV방송, 영화, 지역 제작 영상, 조사자 제작 영상 등
- 음향: 라디오 방송, 구술생애사 등
- 문서: 신문 및 잡지 기사, 문학 작품, 발굴 문서 자료, 조사자 노트 등
- 실물: 물증

현대 민속 시기로 넘어오면서 민속 연구의 관점은 조사와 연구의 대상에서 잠재적 활용을 위한 기록화의 대상으로 옮겨오고 있다. 민속이 잠재적 활용을 위한 기록화의 대상일 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온전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현대의 일상 풍속과 도시 민속은 당장의 조사·연구 가치도 있지만, 그보다 향후 잠재적으로 연구, 기타 참고 등에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기록이며 어떤 맥락에서 유용하게 쓰일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능한 한 조사자의 가공이 최소화된 ‘원자료의 모음’ 형태를 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을 기술한 민속지와 여러 원자료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민속 기록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민속을 더 잘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는 조사 주제와 조사의 맥락 등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언이라면 구술을 그대로 채록한 것보다는 대강의 내용을 연구자가 해석하여 기술한 것이 더 쓰임이 높을 수도 있다. 반대로 현지 주민의 감정과 생각을 가늠하려면 글로 서술한 내용보다는 구술을 녹음한 음성 기록이 더 전달력이 높을 수도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원자료 혹은 보고서 중 어느 한 쪽의 방향으로 민속 기록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속 기록을 생산하는 맥락과 필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민속 기록의 성격도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다.

65) 김주관, 위의 글(2005), p.228~229

나. 시청각 자료의 역할

근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텍스트가 중심이 되고 사진, 도면, 악보가 보조적인 자료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현대 민속 시기로 오면서 시청각 기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단권의 책자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기록이 총체적으로 모인 형태로 민속 기록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지 조사에서 수집, 생산된 필름과 음성 테이프 등을 모아놓은 민속 아카이브도 구축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시청각 기록의 생산과 공개의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다. 시청각 기록이 단순한 보조 자료로서 조사 내용의 서술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일부로 기능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청각 기록의 비중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대 민속 시기와 현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960~70년대 문화재연구소의 한국민속종합조사에서 사진, 구술 자료는 그 자체가 민속 기록으로 간주되기보다 보고서의 작성이라는 1차적 목적을 위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가 대체로 보고서 발간을 위한 보조 자료의 성격을 지니며, 사진자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청각 매체 발달에 따른 시기별 시청각 기록의 양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⁶⁶⁾ 『무의식』(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4책, 1983년)을 보면 보고서 뒷부분에 악보, 도판1, 도판2가 있어 부록과 같은 형태로 악보와 그림(진도 굿상 배치도 외) 사진(진도 무무의 춤사위, 통영 오구새남 무넘기 외)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포함한 근대 민속 시기 대부분의 민속지, 민속보고서는 사진, 그림, 도면, 악보가 부록의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장주근은 「한국민속종합조사의 기획과 그 경위」에서 지역별 종합조사를 계획하면서 “해마다 조사를 마치고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66) 본 내용은 해당 내용은 문화재연구소(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황경순)로부터 전자민원을 통해 답변 받은 것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조사단원들이 현지조사에서 촬영한 사진 필름이나 녹음테이프를 복제해서 한부씩은 제출할 것”을 계획했으나 종합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진 필름이나 녹음테이프가 잘 수집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⁶⁷⁾ 추후 전국의 자료들을 모으면 민속박물관에 “민속사진녹음자료보관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했으나 사실상 잘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속 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의 기록을 염두에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고서에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보조 자료로서 성격을 가졌고 당시에는 그 자체가 민속 기록의 가치를 가지고 수집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사 연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사진자료, 동영상 자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한 해당 과 단위에서 관리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이러한 자료의 활용은 물론 관리를 위한 인력 등 문제가 많았다.⁶⁸⁾ 현재는 민속박물관 산하에 민속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통합적 관리의 노력을 기울여 따로 관리되던 기록을 정리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제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해볼 것은 대규모 민속 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된 시청각 기록은 당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보조적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개별 기록의 이용 가치는 최근에 와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민속 시기에 들어서면서 민속 기록에서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시청각 기록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조사보고서, 민속지의 형식 내에서 시청각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시청각 기록이 보고서의 형식 내에서 비중을 확대한 경우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민속조사보고서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현장의 사진, 음원, 동영상을 담아 DVD로 발간하였다. 일종의 부록이나 자료집의 형태로 시청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같이 종이 기록으로 발간하지 않고 웹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문자, 영상, 음성 기록을 글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민속 기록도

67) 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의 기획과 그 경위」,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2~18

68) 김시덕, 「민속아카이브」,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p.100

있다. 이를 통해 보고서가 어떤 상황의 면담과 관찰을 거쳐 서술되었는지 자세한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영상 민속학(Visual Folklore 혹은 Visual Ethnography)의 한 분야로서 텍스트를 줄이고 사진을 본문으로 하는 사진민속지(Photographic Ethnography)도 있다. 이는 사진과 텍스트의 비율이 최소 50:50이거나 사진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형태의 민속지이다. 사진민속지는 텍스트와 사진이 본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의 기능을 하는 도록이나 사진집과 다르다.⁶⁹⁾ 기록 사진이 그 자체로 민속자료 구실을 하게 됨에 따라 사진이 주가 되고 글이 보조가 되는 보고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⁷⁰⁾

둘째는 조사보고서, 민속지의 형식을 가지면서 별도의 음성, 사진,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속박물관의 『살림살이보고서』와 『중국의 혼례문화』는 사진 기록이 별도의 아카이브로 만들어져 있어 보고서와 별개로 열람할 수 있다. 민속박물관의 『살림살이보고서』는 현지 조사에 전문 사진작가가 함께 참여하였고 조사의 구상 단계에서 어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지 대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 달동 유정수 박은경 가족의 살림살이』, 『황인용·김희순 부부의 살림살이』의 사례도 각 사진에 조사 일자, 조사자, 용도, 특징 등 각각 기록의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여 별도의 아카이브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동시에 사진 아카이브가 만들어질 경우 보고서라는 지면상의 한계에서 자유롭게 된다. 보고서의 제한된 지면에 실리지 않아도 하나의 기록으로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다.

셋째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과 같이 처음부터 민속아카이브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원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경우이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아카이브는 정지 영상, 동영상, 음향, 문서, 실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현지 조사 단계에서 민속아카이브의 구성 요소로서 수집된다. 시청각 기록이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지 조사 단

69) 사진민속지라는 용어와 이에 관한 내용은 김시덕, 위의 글(2005), p. 65~66 참조.

70) 임재해 외,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2010, p.41

계부터 계획적으로 수집, 생산됨으로써 민속 기록에서 시청각 기록이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표8> 최근 민속박물관 민속 현지 조사의 시청각 기록

연도	조사 제목과 결과물	기록 형식	조사 내용
2008	주제별민속조사 중국의 혼례문화 1,2,3권	-동영상, 음원, 사진을 보고서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의 형식으로 제공 -사진 기록이 별개의 아카이브로 정리되어 있음	여러 소수 민족의 혼례문화를 절차에 따라 관찰하여 기록
2009~ 2010	주제별민속조사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	사진 기록이 아카이브로 정리되어 있음	엄마 스스로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을 기록하고 다양한 제보자들을 통해 현대 임신, 출산, 육아의 양상을 조사
2006~ 2011	지역민속조사 살림살이보고서	[울산광역시달리달동] 사례 -동영상과 음원, 사진을 보고서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의 형식으로 제공 -구술 내용을 풀거나 조사 내용을 적은 형식 -사진 기록이 별개의 아카이브로 정리되어 있음	하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
2006~ 2011	지역민속조사 민속지	-동영상과 음원, 사진을 보고서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의 형식으로 제공	하나의 민속지당 하나의 살림살이 보고서가 연동

시청각 기록이 갖는 비중이 증대되면서 민속의 현지 조사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조사에서 처음부터 시청각 기록이 민속 기록으로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수집,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한 조사자가 많은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권장되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촬영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 받지 못하기도 하는 근대 민속 시기의 현지 조사와는 다르다. 임재해는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에서 민속학의 발전에 따라 ‘민속을 쓴다’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민속을 찍는다’는 새로운

조사방법과 보고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였다. 기록영상을 중시하는 조사연구 방법으로서의 전환과 민속지 편집 방향이 모색될 필요도 제시되고 있다.⁷¹⁾

다양한 매체의 시청각 기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민속 기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시청각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영상 인문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영상민속학(Visual Folklore), 음향인류학(Anthropology of Sound), 시각인류학(Visual Anthropology), 영상인류학(Ethnographic Film)과 같이 인류학과 민속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표현 매체를 통해 학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다.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을 손쉽게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연희, 의식과 같은 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시청각 매체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을 민속학 분야에서 인지하고 활용하게 된 것이 시청각 기록의 비중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 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주제별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했지만 적절히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민속 분야의 시청각 기록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각계의 아카이브의 구축 움직임은 현지 조사에서 수집, 생산된 기록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테이프, 필름, DVD 등 여러 시청각 기록들의 관리와 활용 문제를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속이 현대 민속에 주목하면서 민속 기록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시청각 기록의 비중이 높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근대 민속 시기 민속지, 민속보고서는 전통적인 민속의 모습과 현황을 기록에 담았다. 가령 산신제(山神祭)를 예를 들면 제를 지낼 때 어떤 도구와 옷이 필요한지, 어떤

71) 김시덕, 위의 글(2005), p.67~68

순서로 제를 지내는지 세세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각 마을에 산신제를 지내는 풍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마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것도 기록한다. 이는 설령 산신제의 풍습이 변형되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추후에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글로 옮겨두는 작업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민속을 기록한 민속 기록은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민속 기록은 전통적인 민속이 지니는 '소중함'과 등가(等價)의 가치를 가진다. '우리 것'을 보존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록이다. 앞서 말한 산신제의 조사 내용이 정리된 민속지가 있다면 이 민속지는 산신제라는 현상이 가지는 희귀성과 일회성을 대신한다. 이는 텍스트로 표현된 산신제의 모습이자 현황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알지 못하게 된 굿, 제례 의식, 산속(産俗)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한 것을 전달해주는 매개가 근대 민속 시기의 민속지, 민속보고서인 것이다.

반면 현대 민속에 중점을 둔 기록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바꾸어 말하면 민속의 원형과 등가의 가치를 지닌 근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과 달리 현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미래의 활용에 담보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예컨대 2006년 이후 간행된 『살림살이 보고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민속보고서는 아파트의 집 구조와 가구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세월이 흐른 뒤 21세기 초반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살림살이를 보여줄 수 있다. 이 기록은 미래의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21세기 초반 한국 중산층의 삶의 양식을 연구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미래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과거의 생활 풍경을 묘사하는데 참조될 수도 있다.

현대 민속에 초점을 둔 민속 기록은 향후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동시대 일반 시민의 풍속을 기록화한 것이다. 미래의 쓰임에 대비하여 수집, 생산하는 기록인 만큼 추후의 활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민속 기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민속 기록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학문의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 예술, 산업 등 일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민속을 생생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대 민속에 중점을 두는 민속 기록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시청각 기록은 민속의 현장을 생동감 있고 쉽게 전달하기에 글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청각 기록이 이전보다 민속 기록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을 이해해볼 수 있다.

다.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

민속 기록에서 제보자 혹은 구술자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시민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사자,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하지 않은 원자료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원자료가 ‘있는 그대로의 자료’라고 해서 조사자의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지 조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사 지역 및 피조사자의 선정, 질문지·설문지 작성 그리고 실제 면담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자의 관점이 투영된다. 원자료는 수집 이후에 조사자의 관점에 의한 가공이 최소화된 기록으로 보면 적절할 것이다.

수집된 기록을 조사, 조사자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편집하는 정도가 감소하면서 음성 기록의 원본, 동영상 기록, 채록된 구술 자료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목소리가 좀 더 그대로 드러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의 경북의 전통마을시리즈는 그 보고 양식에 있어서 “조사 내용에 따라 민속지 수준의 체계를 갖춘 것에서부터 구술자료 채록 보고까지 다양한 방식을 이루고”있다.⁷²⁾ 『경북의 전통마을Ⅲ-줄당기기와 길쌈이 유명한 청운마을』을 보면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민간신앙 조사 내용을 설명 부분과 구술 채록본이 실린 부분으로 구성했다. 이는

7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경북의 전통마을1-안동시 풍산읍 서미2리 민속지 까치구멍집 많고 도둑 없는 목현마을』, 2002, 머리말 참조

서술자의 설명 중간에 제보자의 구술이 인용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구술 채록본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실은 것이다. 서술자의 설명이 중심이 되고 필요한 구술 부분만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구술 채록본으로만 조사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경북의 전통마을 시리즈’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는 현장론적 방법으로 텍스트를 처리하여 향후 자료로서 가치의 무게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⁷³⁾

민속박물관의 현대 임신·출산·육아 조사보고서인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는 기록 자체에서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⁷⁴⁾ 이 조사보고서는 육아를 경험한 엄마 스스로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보자들을 통해 현대 임신, 출산, 육아의 양상이 어떠한지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 앞부분은 임신, 태교, 출산, 육아의 항목별 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사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제보자들이 올린 육아일기와 구술 조사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⁵⁾ 조사자의 설명과 그에 맞는 제보자의 사례를 같이 엮는 것은 이전의 민속지나 조사보고서에서도 많이 보이는 구성이지만 조사 시기에 한정적으로 수집된 구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보자에 의해 기록된 글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보고서의 뒷부분은 육아 살림살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2009년에 출생한 김아라찬의 어머니가 스스로 아기를 임신하는 과정부터 탄생과 출산, 1년여의 육아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기를 쓰듯이 기록하였다.⁷⁶⁾ 제보자가 스스로 기록한 일기와 글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73) 김시덕, 위의 글(2005), p.65

74) 국립민속박물관,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 2011

75)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는 조사를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제보자들이 직접 올린 육아일기를 발췌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언어가 포함된 육아일기와 구술 자료는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으나 의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다.

76) 『엄마가 쓰는 육아일기』에 의하면 민속박물관의 현대 임신·출산·육아 조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제보자로 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현대 육아 양상을 기록하고, 그 할머니 세대의 인터뷰를 통해 1970~80년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변화 과정까지 살피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다.

일상적인 경험과 기억이 근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에 비해 가감 없이 전해지는 민속 기록이 생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는 민속지와 조사보고서 자체를 통해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에 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속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일련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적은 ‘평면적인 기술’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평면적인 서술을 지양하고 조사자의 시각에서 분석·해석된 정보를 요구한다. 사실 그대로를 옮겨오는 민속 기록 보다는 조사자가 유의미한 연구로 엮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장혁은 물질문화조사의 일환으로서 운반용구(運搬用具)를 주제로 한 민속종합조사보고서(1997)를 검토하면서 지계의 제작 방법이나 용도를 기술함에 있어서 채록한 그대로 서술체로 기술하고 있어 보고서 기술 상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관을 담은 기술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⁷⁷⁾

실질적으로 발간된 민속지나 민속보고서에서 정보를 조사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여 서술하였는지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는지 여부는 어느 한편으로 정하여 말할 수 없다. 하나의 민속 기록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적용되었을 수도 있고 현지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이 시기 민속 기록에 관한 연구에서는 평면적인 서술보다는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조사자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서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현지 조사와 민속지의 서술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두 접근법인 내부적(emic, culture-specific)시각과 외부적(etic, culturally-neutral)시각을 논의한 연구를 통해서, 민속 기록의 서술 주체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외부적 시각이라는 것은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 집단 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이고 확장적인 이론과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77)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7 운반용구』, 1997

예를 들면 마을 내에서의 친족 관계가 각 구성원의 사회적 위치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사회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일반론적인 규칙을 확인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내부적 시각은 이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연구 대상 집단 안에서만 유효한 해석, 철저하게 마을의 내부의 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상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관점 자체가 아니라 내부적 시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방법이다. 1986년 김광익은 관찰한 사실을 최대한 해석하고 분석하여 서술함으로써 내부적 시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자는 민속 조사를 통해 생생한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마을 주민의 말로 ‘번역’하여 전달할 것이 요구된다.⁷⁸⁾ 마을 내부에 있는 주민의 눈으로 풍습과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조사자의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이는 2003년대 배영동의 연구 등에서도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다.⁷⁹⁾

반면 최근 이와 다른 시각이 등장하였다. 임재해는 내부적 시각을 실현하는 방법은 원자료를 통해서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을 주민의 시각에서 본 현상을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하는 방법은 원자료의 형식으로 민속 기록을 생산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시각은 구성원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⁸⁰⁾ 임재해는 일정한 틀에 내용을 채워 넣는, 틀이 짜인 보고서에서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하고 종이에 문자로 기록하는 리포트(report)의 형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글쓰기’를 통해 민속이 보고되면 여러 제약에 의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에 의해 결과적으로 글은 ‘부분적인 진리’만을 전하게

78) 김광익,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민족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8권 1호, 1986, p.131~140 참조

79) 배영동,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161~185 참조

80) 임재해, 「민속 조사보고,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민속정보 축적과 문화지식 공유의 발상 전환」,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9~35 참조

된다.⁸¹⁾ 이를 극복하고 “상투적인 조사와 상투적인 보고의 틀을 벗어나려면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제 상황을 가능한 온전하게 그들의 목소리로 보고해야”함을 제안한다.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로 진술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민속 기록이 가능한 한 어떤 해석과 분석이 가해지지 않고 현지 조사 당시의 맥락을 잘 보존한 원자료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음을 살펴보았다. 근대 민속은 민속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대 민속 시기의 산속(産俗)을 보면 기자(祈子)를 위한 치성은 어떻게 드리는지 금줄은 아이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답, 민속의 원형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어느 제보자가 원형으로 간주되는 것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것은 원형과 다른 그른 제보이다. 고정적인 원형이 실제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형’이라는 개념에 최대한 가깝게 민속의 현상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대 민속 기록은 개인의 경험과 유동적인 삶의 모습을 다룬다. 이러한 현대 민속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기보다는 민속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있다. 조사자는 여러 제보자를 면담하여 하나의 원형으로 수렴되는 민속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면담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추세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각 개인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개별적인 사례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으로 해서 조사자가 현지 조사에서 목격한 민속 현상을 해석하여 전달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사실 근대 민속의 내용은 관련 연구자의 번역과 해석이 없이 원자료를 통해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중 어떤 내용이 근대 민속의 원형인지도 분별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대로 현대 민속은 가령 요즘의 산모는 어떻게 출산을 준비하는지, 육아는 어떻게 하는지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사례를 다룬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사 대상자의 말, 행동 혹은 현상 그대

81) 클리포드의 ‘부분적 진리’는 임재해, 위의 글(2003), p.46

로 전해질 때 더 맥락을 파악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민속의 새로운 의미가 민속 기록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IV. 민속 기록의 변화와 민속아카이브의 역할

4장에서는 최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속아카이브가 민속 기록의 성격 변화에 비추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3장에서 도출된 민속 기록의 변화상을 토대로 현상을 새롭게 해석해보려는 노력이다. 국내 민속아카이브로서 가장 큰 규모로 건립된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박물관의 유물 외에 이를 보조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이용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민속아카이브는 민속에 관한 다양한 매체의 민속자료 컬렉션을 관리하는 종합적 정보 센터로서 한국 민속자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속자료를 포괄하는 민속아카이브를 표방한다.

민속아카이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오래지 않았다. 민속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2000년을 전후하여 향토사학계에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향토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지방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의식이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나오게 된다.⁸²⁾ 민속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지 조사나 기증 등에 의해 수합된 민속 기록들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시청각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관리방식에 있어서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등 기존의 기관에서 소화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기관에서 분류와 정리 및 보존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민속 기록들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고, 박물관처럼 전시의 기능은 없으나 향후 잠재적인 쓰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기록의 이용을 제공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민속 기록을 공개하여 박물관의

82) 이정재, 「민속아카이브와 문화정책」, 『한국민속학』, 제9권 6호, 2004, p.73

박물관과 함께 생생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민속 아카이브에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민속 아카이브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인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체계적인 민속 기록의 수집, 생산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민속아카이브의 필요를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시청각 기록을 포함한 민속 기록을 관리하고 정보 자원으로 제공할 설비와 기술을 갖춘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속 기록 관리의 현황을 근거로 민속아카이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민속 기록의 관리가 시급한 문제인 이유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기록들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민속 기록을 원자료의 형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증대되었다는 점에서도 민속아카이브 구축의 시급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민속의 시기로 오면서 현지 조사에서 수집, 생산된 기록은 미래에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자료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이 주로 조사와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면 현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비단 학문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문학, 예술, 문화 산업의 영역까지 활용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 현 민속기록 관리에 대한 현상적인 분석에 더하여 민속이 현대의 민속으로 옮겨가는 큰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민속아카이브의 역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박물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60년대 초부터 본격화 된 민속 문화 보존 장치들이 수 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이슈는 박물관의 연장선에 있는 민속 아카이브에 대한 발상이었다.⁸³⁾ 민속아카이브가 관리하게 될 민속 기록은 민속 박물관이 소장한 민속 박물관 내지 민속 문헌과 함께 제공되었을 때 더 생생한 정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카이브(Archives)는 박물관이 아닌 도서관과 비교하여 역할의 차이가 강조된다. 아카이브는 도서관과 달리 유일한 기록의 원본을 관리하며,

83) 이정재, 위의 글(2004), p.69

단일권(單一卷)이 아니라 맥락이 유지된 기록의 모음을 집합적으로 보존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반면, 아래의 <표9>와 같이 민속 아카이브는 박물관과 비교하여 의미가 설명된다.

<표9> 민속박물관과 민속아카이브의 비교

구분	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목적 및 기능	민족문화유산 수집, 전시, 보존, 연구, 교육, 서비스	민족문화 증거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서비스
소장의 대상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의 생활문화 유산	다양한 매체의 생활문화 기록자료
소장품의 성격	유일성, 원본성, 문화 유산적 가치	증거물, 정보적 가치
수집 방법	구입, 수증, 유증, 이관 등	구입, 수증, 유증, 이관, 복제 등
평가 기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정보적 가치

※ 김시덕, 「민속 아카이브 구축」,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p.98

<표9>에 따르면 민속박물관은 유형 유산의 유일한 원본을 관리하며, 소장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이다. 이에 비해 민속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의 생활문화 기록자료’를 관리하며 평가 기준은 정보적 가치이다. 이 때 아카이브는 원본이 아니라 복제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정보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성, 유일성의 가치는 약화된다. 동시에 다양한 매체의 자료가 가진 정보성이 민속아카이브가 갖는 특성이 된다.

민속아카이브가 원본성의 가치보다 정보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민속 기록의 정보화 논의와 맞닿아 있다. 현대 민속 시기의 민속 기록은 현지 조사 당시 생산된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활용될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최근 민속학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속자료의 공유와 정보화 방안에 관한 담론은 민속의 의미 변화라는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현대 민속을 대상으로 한

민속 기록은 잠재적인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속 기록이 가진 정보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중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시된 것이 민속 아카이브라고 생각한다.

민속 기록이 조사자, 연구자에 의해 보고서로 간행되는 근대 민속 시기의 특성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사진, 질문지, 조사노트와 같은 다양한 민속 기록이 보고서의 편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록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각의 기록은 하나의 현지 조사라는 큰 범위 안에서 상호간의 맥락을 유지하는 아카이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향후 민속학의 민속 기록 관리에서 기록 관리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이외에도 각각의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여 주제별, 매체별로 관리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민속아카이브는 현대 민속에 주목하는 민속학계가 민속 기록의 정보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기술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 학문적 관점의 변화에 의해 민속 기록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속 기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해방 이후 한국 민속 기록은 1960년대에 지금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법과 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대규모 조사사업을 통해 수집,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조사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많은 조사보고서와 민속지가 발간되었다. 이때 민속이란 개항기 이후 반속의 의례와 풍속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인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민속은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고정적이고 고유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민속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과제가 주어지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근대 민속은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의 가치를 지니므로 민속 조사의 결과는 주로 연구자, 조사자의 지식에 의해 적절히 가감되고 편집된 형태의 조사보고서, 민속지 형식으로 생산되어왔다. 시청각 자료, 메모, 구술 기록 등은 주로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서 결과물의 발간이 완료되면 각 부서나 자료실에서 보관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민속의 관심은 점차 도시 민속, 일상생활사와 같이 유동적인 ‘현재’의 민속으로 옮겨오게 된다. 전국이 도시화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이 동질화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또한 농촌 사회의 와해와 개항기 전후를 기억하는 세대의 노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민속의 관점은 그 의미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근대와 현대를 경험한 일반 시민의 경험과 기억이 민속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민속은 점차 잠재적 활용을 위한 기록화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당장의 시급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연구를 위한 충실한 기록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원자료의 모음’ 형식이 새로운 민속 기록의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민속 기록을 모두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어 1960년대 이후 생산, 수집된 민속 기록 중 관련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민속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민속 기록 형식의 변화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속 기록이 다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민속 기록에서도 기록의 성격과 변화에 대해서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기록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문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되며 여러 영향 관계 가운데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기록에 요구하는 역할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민속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속 기록이 어떤 배경과 관점에서 생산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록 자체의 성격을 살필 때 현안으로 떠오르는 민속 기록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담론들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제임스 오톨(James M. O'Toole) 저, 이승억 역, 『기록의 이해』, 진리 탐구,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민속학회,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김시덕, 「민속아카이브」,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전통문화 연구 50년』, 혜안, 2007
-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2004
- 임재해 외, 『민속 조사의 현장과 방법』, 민속원, 2010
-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장철수, 민속원, 2000
- 주종택,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민속자료의 보존과 활용」,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 함한희, 「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 허용호, 「민속자료의 축적과 활용방안」,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2. 논문

- 김광익,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민족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8권 1호, 1986, p.131~156
- 김시덕, 「한국민속학의 현지조사연구 방법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 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 39~70

- 김일권, 「한국민속학의 학제간적 복합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30년」,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2012, p. 284~313
-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 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록학회 제33권, 2012, p.86~93
-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1호, 2005, p.221~229
- 김창민, 「마을 조사와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민속학』 제47호 2008 p.7~28
- 김홍식, 「전국민속종합조사의 회고와 전망-의식주분야-」, 『한국문화인류학』 제10호, 1978, p.140~146
- 박수환, 「박물관 생산 자료 전자 보관소(Digital Archive)] 구축 사례: 『전국부락제당조사질문지』 데이터베이스」, 『생활문화연구』 제19호, 국립민속박물관, 2006, p. 81-109
- 배영동, 「마을사회의 의식주 민속지 작성법」,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161~185
- 배영동, 「현지조사와 민속지 작성의 방법」, 『민속학연구』 제1집, 1989, p.95~124
- 이상현, 「민속아카이브의 정리 방법과 민속학 연구」, 『한국민속학』 제54호, p. 273~310
- 이정재, 「민속아카이브와 문화정책」, 『한국민속학』 제40호, 2004, p. 67~107
- 임재해, 「공동체 문화로서 마을 민속문화의 공유 가치」(한국건축역사학회 주최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학술발표문), 2007, p. 107~163
- 임재해, 「민속 조사보고,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민속정보 축적과 문화지식 공유의 발상 전환」 『민속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9~62

장장식, 「한국민속학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성찰」,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1』, 국립민속박물관, 2005, p. 9~38

주강현, 「역사민속학의 궤적과 전망」, 『역사민속학』 제35호, 2011, p. 8~41

3. 기타 자료

[홈페이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http://portal.nricp.go.kr/>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http://archive.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현상조사 <http://efw.nfm.go.kr/service/main.do>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main/main.asp>

Abstract

New Meanings of Korean Folklore and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Folklore Record

Hong Yeon Ju

Program in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liberation, Korea as a nation has maintained and secured the Korean folklore archetype based on the records gathered and produced through field research. However, recent socio-economic change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 led the academic circle of ethnography to gradually expand its ground from traditional folklore to everyday life, culture, and history of modern urban ethos. The change and growth of the meaning of folklore also affected the records that are gathered and produced through field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folklore and the perception of folklore research as a result of socio-economic transition altered the records that are gathered and produced by field research of folklore.

The study first reviewed how the concept of folklore and the perception of folklore research had changed as a result of socio-economic transition. On the basis of the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folklore records were examined and studied from three aspects: methods of arrangement of folklore records, the role of audio-visual materials, and the subject of description of folklore records. Lastly, the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folklore Archives in lieu of the changes in folklore records.

Folklore records were first collected and created in 1960s through massive research projects fostered by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such a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1970s, full-scale research projects were initiated and number of research reports and ethnography were published as a result. At the time, folklore was defined as a cognitive structure and lifestyle forged when traditional customs mixed with foreign customs after the opening-port era. The folklore was recognized as moribund, fixed, and unique which was in need of immediate research as it was in a phase of dissipation; therefore, most tasks were designed to recover and protect folklore's archetype and these tasks were put in the hands of expert researchers. Since the modern folklore has the values of expert research and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e folklore research have been mainly produced in the form of research reports and ethnography properly tailored and edited with the knowledge of experts. Audio-visual materials, memos, and verbal transcripts were considered to be supplementary data for research reports and were stored in storages of department after the reports were published.

After 1990s, the focus of interests in folklore moved gradually to volatile contemporary folklore of present everyday affairs. With the nation-wide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new traditions centered on urban areas began to emerge. In addition, dismantling of rural areas and ageing of the generation who still remembered the time of port-opening era further weakened along with the ground of traditional perspective about folklore. As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people who went through both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became major interests, folklore gradually began to be recognized as something to be recorded for potential usage. In other words, substantial recording for potential research in future, not immediate research and investigation, is required. Consequently, 'aggregation of raw data' which can candidly represent the concurrent state is gaining attention.

The feature of modern folklore, where the records were published by reports composed by researchers and experts, is gradually changing. Various folklore records, such as audio-visual materials, photos, questionnaires, and researching notes which used to be part of the reports, are now being managed separately. Each record has the feature of archives to maintain inter-relational context in the wider scope of one field research. Thus, it is assumed that the method of archiving will play a bigger role in the field of Ethnography, particularly for the management of folklore record. In addition to composing a report after the completion of a field research, a management of every record based on its subject and media by categorizing and describing will be paralleled with report composition.

Folklore Archives is expected to be the kernel of utilizing the informative value of folklore records in various fields. Folklore

Archives will be a prime manner in the folklore academia, which is attentive to contemporary folklore and implementing the informatization of folklore records. Instead of simply adopting the record management technologies at technical level, a method built upon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 change of folklore records in transformed social and academic perspectives will be a better way of enhancing the value of folklore records.

**keywords : folklore records, folklore Archives, ethnography,
urban folklore, history of everyday life, record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11-20093